

기초교육원 활동 및 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 분석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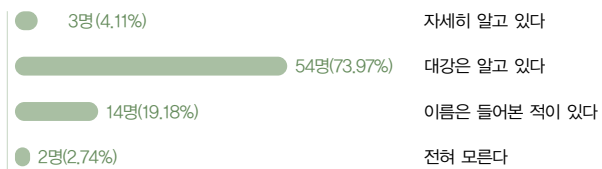
기초교육원 소식지 <열린 지성>은 창간과 함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원 전반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서울대 중앙전산원 설문조사 시스템(<http://isurvey.snu.ac.kr>)의 협조로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1학년 22명, 2학년과 3학년 각 18명, 4학년 15명으로 총 73명이 참여했다. 여름방학 중, 짧은 기간 동안 설문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여 인원이 다소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설문 참가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학부생들의 기초교육원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설문은 참가자 신상 및 기타 의견 항목을 제외하고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은 크게 기초교육원의 인지도 조사와 홈페이지 운영 관련 질문,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의견 조사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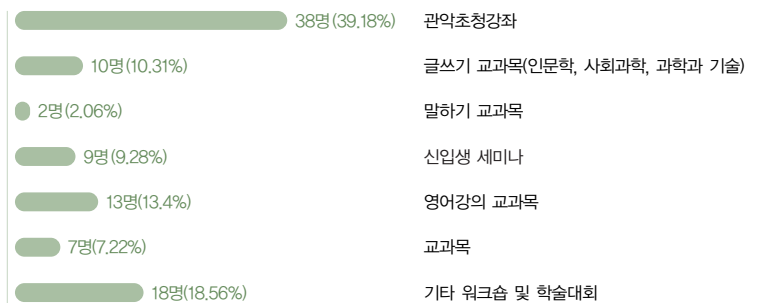
기초교육원 인지도

기초교육원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는 항목에 답한 학생은 총 57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이 중 3명은 자세히 알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을 한 학생도 2명 있었다. 기초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직접 참여해 본 것을 체크하는 항목에서는 관악초청강좌에 참여한 학생이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기초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프로그램은 글쓰기 교과목, 관악초청강좌, 신입생 세미나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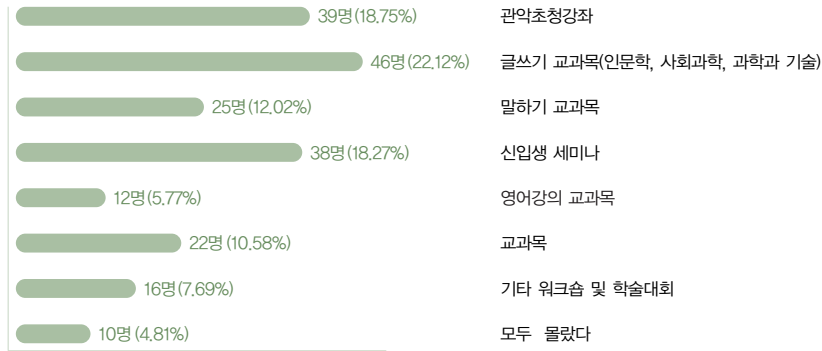
① 기초교육원이 하는 일에 대해 알고 있다.



② 기초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중 직접 참여해 본 것은?



③ 위의 질문에 제시된 교육프로그램 중 기초교육원에서 주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중복 선택 가능)



기초교육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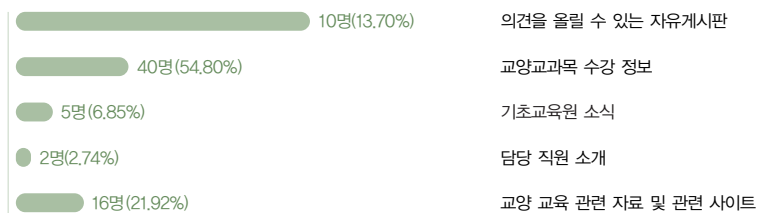
기초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http://generaledu.snu.ac.kr>)에 대해 알고 있거나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47명(64%)이었다. 그러나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문해 본 적이 없다는 의견(22%)과 홈페이지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14%)는 의견도 있었다. 개편될 홈페이지에 보완됐으면 하는 항목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40명(55%)이 '교양교과목 수강 정보'를 꼽았다.

현재 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서는 개설된 모든 교양교과목의 간단한 개요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과목은 개요 자체가 빈 칸으로 돼 있거나, 실제 수업 내용과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그 밖에 홈페이지에 교양교육 관련 자료 및 관련 사이트 메뉴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16명), 자유게시판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10명)도 있었다.

④ 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방문해 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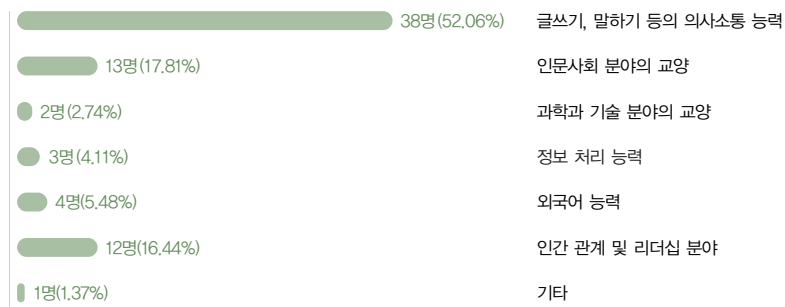
⑤ 개편되는 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 보완되거나 신설 되었으면 하는 항목은?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의견

응답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의 기초교양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47명으로 전체의 64%였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23명(32%)이었다. 기초교양교육을 위해 강화돼야 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인 38명이 글쓰기 말하기 등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답했다. 이들 중에는 글쓰기 강좌 운영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학생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글쓰기 강좌가 논문 쓰기에 치우쳐 있어 실용문 연습을 위한 강좌가 개설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밖에 강화돼야 할 기초교육 분야로는 인문사회분야 교양(13명), 인간관계 및 리더십 분야(12명) 순으로 나타났다.

⑥ 대학생의 기초 교양 교육을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는?



기초교육원에 바라는 점

마지막 질문으로 제시된 ‘기초교육원에 바라는 점’에는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눈에 띄었다. 응답자들은 무엇보다 기초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기초교육원이 학생들에게 너무 폐쇄적인 분위기라서 거리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기초교육원 홈페이지를 활성화 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많았다. 다수 응답자가 ‘기초교육 관련 강좌나 행사가 있을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지하거나 홍보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기초교육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교양 강의에 관련된 응답으로는 글쓰기 수업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2005년 신설돼 반응이 좋았던 신입생 세미나와 같은 강좌를 고학년들을 대상으로도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도 응답자들은 관악초청강좌 VOD 서비스, 자기 개발을 위한 체험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 장윤선

